

社說

동국발전기금 모금운동 모든 주체들이 적극 참여해야

건국 83주년을 맞는 5월에 들어와 「동국발전기금」을 위한 기금 모금에 대한 논의가 널리 퍼지고 있다. 기금모금의 명분은 동국 발전에서 찾고 있는 사실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우리 학교가 오랜 세월 동안 칩체 의 높여 빠져들기 시작한 중 요한 원인을 가운뎃 하나나 바 로 부자재원의 한계에 있었다 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자 재원의 한계 는 최근 등록금 동결이 문제 로 제기되면서 더욱 명확하 드 러났다.

어쨌든 동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공 약의 여러 주체들 사이에서 높 아가고 있음은 늦기는 하였으 나 환영할 만하다. 올해만 해 도 정원 노조가 기금 문제를 계속 거론하였으며, 대학원 학생회가 이를 추진한 의사를 확 신히 밝혔다. 보도된 대로 재 단도 기금 조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 한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구체 적 방안을 세움에 있어 각 주 체들의 견해가 완전히 통일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 적이다.

우리는 기금 마련 운동에 적 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옛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모금 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일정한 조직체가 결성될 것 인데, 여기에는 동약의 모든 주 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해 야 한다는 점이다. 동국 발전 이라는 기치아래 모든 주체들 이 모처럼 합심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소외되 는 주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 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아 무리 좋은 방안이라 할지라도 소외되는 주체가 있으면 추진 력을 얻기 어려우며, 또 아무 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의지를 합치면 이뤄질 수 있 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 기로하자. 둘째, 기금의 용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모금의 명분이나 「선명성 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 불필요한 잡음을 배제하 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모금 조직체가 동약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책임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기금 관리에 서도 참여 주체들이 공동 책 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금 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동국」을 모색하는 각 주체들 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우리는 특히 교수회와 학교 당국이 이 문제를 진취적으로 다루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중지를 모으 고 일정한 행동을 보일 때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제도화된 폭력에 의해, 특히 70년대 유신체제 등장 이후 폭력의 악순환의 일상화로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제 전체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가닥 비극적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총체적 혼돈의 와중에서 새



배동인 <강원대학교 교수·사회학>

로운 사회질서가 임태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정권은 얼마전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공권력의 강력한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정치행태를 보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을 지향하거나 수호하고 있 는 것임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 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현시국은 국가권 력의 폭력화를 드러내고 있음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정부 자체의 존재의 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제 기케 한다.

가권력은 이미 폭력으로 전락했음을 뜻하며 따라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여기에 바로 폭력과 권력의 질적 차이가 드러난다. 폭력은 인 간사회와 국가의 형성이전의 단 계인 원시적 야만상태에서 인간 의 상호관계가 인간의 자연에 대 한 관계의 구별됨이 없이 육구 층층의 규율체제의 기능을 수행 한데 반하여, 권력은 인간의 사회 적 상호작용관계에 근거하여 사 회적 조직화로서의 국가형성과 합 계 폭력의 규범적 기능전환, 즉 제도적 정당성의 인정을 얻기 위 해서 전체사회를 구속할 수 있 는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권력은 인간사회의 상호성이라는 구조적 역할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작용과정이 예측가 능하지만, 폭력은 사회나 국가자 체의 존재를 도의시키는 반사회 적을 기본속성으로 전지하기 때 문에 그 행사는 예측불가능하다. 권력은 인간의 사회관계를 떠나 서는 존재할 수 없으나 폭력은 인 간의 사회관계의 해체를 전제로 하여 나타난다.

현정권이 폭력지배체제로 전락 하고 있음은 폭력의 일반적 속 성인 언어배제성, 일방성, 강제성, 사회관계의 수직성, 그리고 파괴 성이 현정권의 주요정치행태의 성 격으로 부각되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서 엿보인다.

가령 6·29선언이 「속구기」로 평가된다든지, 중간평가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무기언기 또는 취소 된다든지, 공권력의 노사분쟁에 의 투입방식이 적나라한 폭력성을 드러낸다든지, 관주사민화상의 진상 규명과 5공비리의 취재결과에 서 정부·여당의 문제해결의 의 지와 능력이 없음을 행동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든지, 고문기술자 이 근안서를 검거하지 않고 있다든 지, 분당·일산의 신도시건설회의 무도함과 반민주성과 불합리 한 현지주민들의 인권과 생존 권의 유린으로 나타나고 있다든 지, 조선대생 이철규씨의 병사사 진의 진상규명이 커녕 미국 젊은 의혹수에 은폐되고 있다든지 그 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 이 많은 인간생명의 경시사태들 에서 규명히 드러나는 인간존엄 성의 파괴와 공권력에 의해서 자 행되어 온 사실 등이 국가권력 의 폭력화를 반증해 준다.

여기서 폭력은 크게 두가지 행 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시적

폭력근절선언은 폭력지배체제 강화의도

물리적 폭력이요, 다른 하나는 비 가시적, 구조적 폭력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간존엄성의 파괴효과 가 직접적이고 그 피해범위가 명 확히 확정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그 피해내 용과 범위가 분명치 않아 인식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훨씬 그 위험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의 민주화과정에서 특히중 요성을 띠는 구조적, 제도적 폭력 으로서는 각종 악법을 들 수 있 다. 가령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노동관계법, 교육관계법 등으로 악 법이란 그 성립과정과 내용에서 단순한 형식논리만이 강변된 다면 그것은 곧 폭력지배체제의 존속이나 재등장을 정당화하려 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수 없다. 국가나 정부나 법사체 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무조 건 신성불가침한 것일수는 없다. 오로지 국가가 정부, 법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느냐 그리고 그것들의 중 극적 존재유인 인간존엄성의 보 장이라는 목표실현에 비추어 그구 조와 내용과 운영과정이 합리성과 정이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이 주 려진 국민, 특히 직접 영향을

현정권, 각종악법으로 구조적 폭력 자행 권력의 권위회복이 민주사회 선행과제

받는 사회집단과 계층에 의해서 주어질 때에만 그것들은 정당성 과 사회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무릇 폭력은 폭력을 불러인으 킨다. 지금까지 이 땅에 폭력의 악순환이 얼마나 많은 인적·물 적 손실과 시간낭비를 초래했고 직 은 상처를 남겼는가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수치는 아 마도 경제성장의 증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리라고 진 작한다.

현 정권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의 지난날 폭력근절선언에서 동 의대사태의 대학생들의 화염병이

라는 폭력만이 증정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그 원인이 되는 최후 탄동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물리 적인 구조적 폭력은 전혀 존재 시키지 않은 것은 폭력지배체제 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의외표 명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 성립되었느냐 그리고 그것들의 중 극적 존재유인 인간존엄성의 보 장이라는 목표실현에 비추어 그구 조와 내용과 운영과정이 합리성과 정이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이 주 려진 국민, 특히 직접 영향을

필 수 있고 사회와 국가의 발 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사회를 가꿔나가기 위해서 우 리는 국가를 조직했으니 이 국 가가 폭력지배체제로 전락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근거 를 무너트린 것이다. 인간의 존 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사회의 최우선적 과제는 모든 형 태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 가가 폭력대신 권력의 권위를 되 찾는 데서부터 풀리게 될 것이다.

민주집중제·공개성 구체적 실현위한 노력 요구돼

—경주학생회의 위상과 방향

학생회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문 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논란속에서 도 우리들은 아직 전체 학우대 는 학생회 활성화의 세가지 핵 심을 가지고 서술해 보자.

학생회 활성화의 세가지 핵심 을 「구조의 문제」, 「대중적 수단 의 문제」, 「학우들의 진취적 생활 활약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옳바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만 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캠퍼 스의 특수성에서 이를 어떻게 정작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먼 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나 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자주적 과별 단위조직을 통해 민주집중제의 실현이라는구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주 캠퍼 스 5대 총학이 학원의 반동 세 력의 중흥으로부터 학우 대중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사 업이 철저하게 공개되지 못한 것 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층 교양강좌, 토론회 공청화들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과 함께 이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전 선동의 구조적 진부화(강 화화) 시켜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우들의 진취적 생활구 제에서 학생회 활동가들은 자신 의 공간에서 학우들의 존재를 배 려어려하며 학우들 스스로 학원 의 지향점과...」라고 서술하고 있 는 부분은 대중의 자생성에 스 트로 한계를 지우는 잘못인데 대 중에게 일각하여 서술된 것이며 동적의식적인 활동가의 지도입문 을 사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회 활성화에 있어 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민주

주체역량강화 통한 과학성숙화 시급

집중제의 관철을 당위적인 차원 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현경주캠 퍼스의 상황에서는 철저한 민주 집중제의 관철을 위한 각 과학 성의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6대 총학의 위상 역시 장기적으로 경주 캠 퍼스의 주체 역량 강화라는 측면 에서 그 위상이 세워져야 할 것 이며,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 조직의 활성화 와 이와의 올바른 결합을 확보 해 내는 것이 그 가장 큰 임 무라 하겠다.

강 순 호 <자연대 조경학과>

이준변사, 정권의 본질 드러내

한 점 의혹없이 사인 규명돼야

89년, 광주는 소위 「이철규 의 문사」라는 또 하나의 용어를 안은채 5월을 맞이하였다.

지난 10일 광주 청학동 수선 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조선 대 교지 「민주조선」의 편집위 원장 이철규교수의 죽음은 사 건발상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현 정권의 은근·왜곡으로 인 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교수의 죽음이 정권의 파 문분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 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것 은 그가 공인합동수사본부의 지 명수배를 받고 있던중 사건당 일 경찰의 포위망에 걸려 들 었다는 점등 최근의 애국민주 세력에 대한 대안압박권·검거 선봉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더욱이 사체는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변 색되고 특히 왼쪽 안구가 유 록 돌출되어 있었으며 가슴, 배, 겨드랑이등 운동이 피명이 든 상처부상도 발견되어 공 권력에 의한 고문 타살임을 시 사하고 있다. 사체상해나 주변 인물들의 증언등 여러가지 정 황으로 보아 타살가능이 확실 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사체부검을 맡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단순사인」로 처리해 이 사 건을 정치권으로부터 서둘러 마 무리지어야 하는 실수를 저지르 고 있다. 이러한 실수는 87년 박정 철교문사때도 마찬가지로 반복 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東國漫評

에도 현 정권은 「라치니 억과 그 죽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살인고문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 이 수사결과발표에 심한 불신 과 거부감을 나타내는데에는 그 동안 누적이온 현 정권의 비윤리적, 폭압적 정치기능발휘 에 기인한 강한 반발로 볼수 있다.

특히 80년 광주민중항쟁당시 의부와와 접촉을 일체 차단해 버린채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 하면서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 아세운 군부세력과 관제언론의 보도양상이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음에 우리는 허무감마저 드 기까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언 일 그들의 매체를 통하여 타 살이 아닌 자살, 실족사가능성 을 의도적으로 확대보도함으로 써 현정권과 같은 목소리를 담 아내고 있다.

술진 이준의 사인규명은 결 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살 흔 적이 역력한데 어느 누가 수 사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있 겠는가. 이준은 5공시절 술하 게 저질러진 의문사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현정권은 그들의 무차별탄압 책으로 인해 발생된 이번 일 을 깊이 반성하고 사인규명에 재착수해야한다.

지금은 민주세력의 단결이 필 요한 때이다.

◇죽어도 내릴수없는 학자투의 깃발이여(?)



인생의 상대성

이 지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잠시동안의 손님으로서 지구를 방문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하기야 때로는 그 목적이 알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 그러나 나날의 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치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즐거움이나 행복을 함께하고 있는 친한 사람들은 물론, 또 동지라는 굴레로써 맺어져 있는 무수한 미지의 사람들을 위해 인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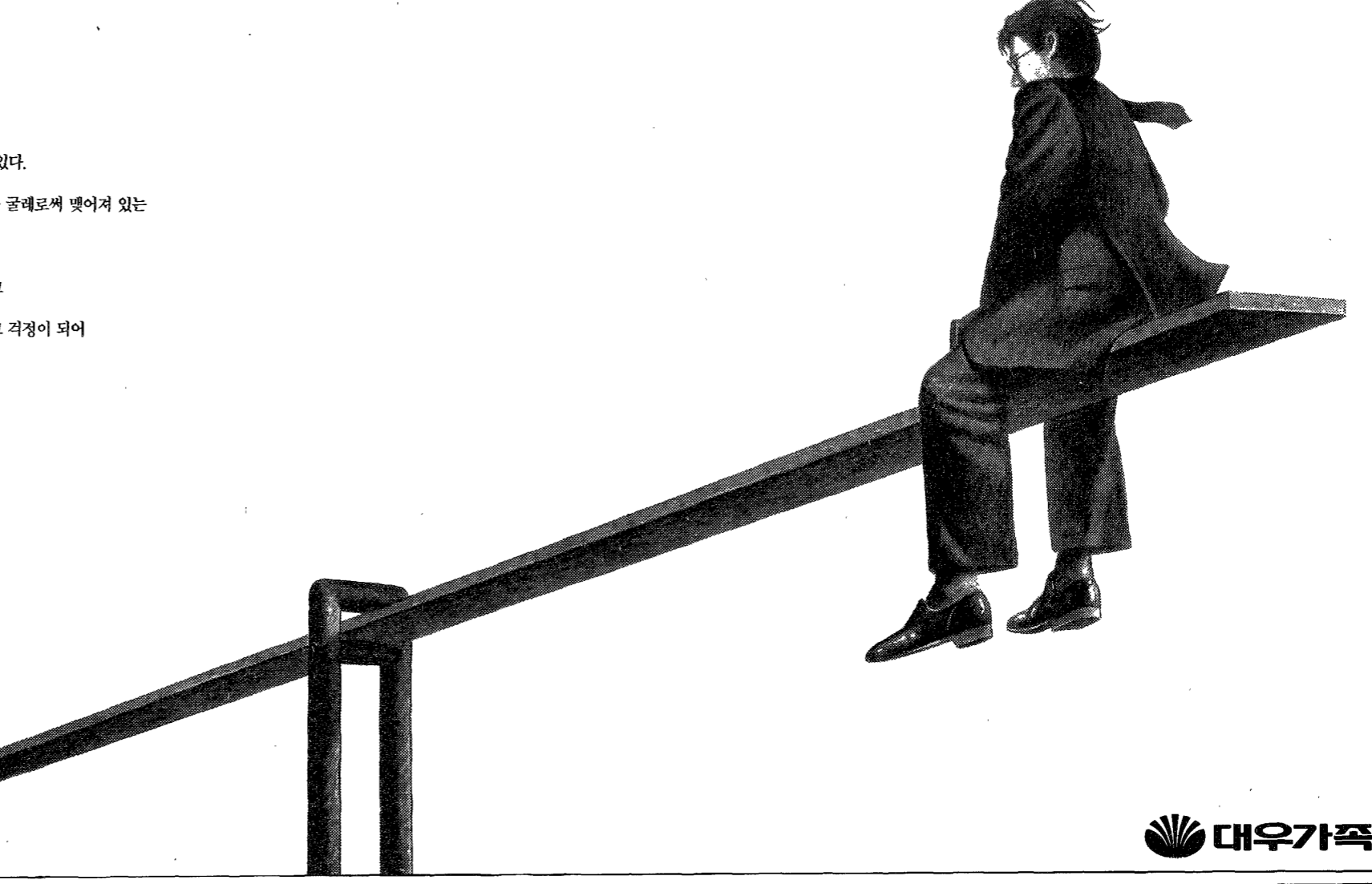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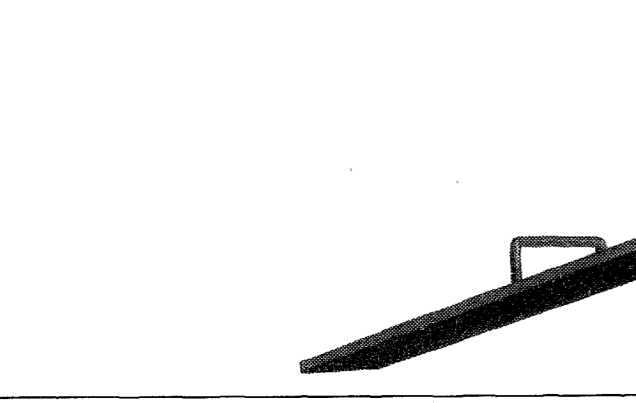
하루에 몇번이나 나는 내 자신의 내적, 외적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노고의 혜택을 얼마나 입고 있는가를 알고 내가 입은 것과 똑같은 양의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부터 너무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적도 종종 있다. 나는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강제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필요에 의해서도 행동하기 때문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인생은 나그네" 중에서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속

민주·민중운동이 실천운동화

- ◇ 글 실 는 차 례
- 1. 우리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 2. 현대불교의 반성과 문제점
 - 3. 80년대 이후의 불교혁신운동
 - 4.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좌담)

원내 머물며 교화활동의 근대화나 자기수양의 극대화만을 부르짖으면서 본체적인 불교의 중흥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처해있는 불교의 원체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소될수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불교계 안에서는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신 움직임이 일어났다. 즉 민중불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불교사회의운동 내지는 불교개혁운동이 그것이다.

그러면 민중불교란 무엇인가, 물론 아직까지도 민중불교운동에 대한 고개사의 평가는 한결같지 않다. 일부 보수적인 고개사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집권적인 사회운동가들이 불교를 빌려온 반체제적 세력임을 정도도 매도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고, 소장 승려들의 참

인 생산기반 (문화충진 여태사의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것이고 포교현장의 구체적 다양성(노동부, 농촌부, 미 불교아학)의 중요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일 중시된 점은 역시 불교의 대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다. 열렬한 의미에서 승가는 세속과 유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화」가 등장했으며, 기존의 사찰이나 지역 포교당이 지역사회의 사회화를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 강조된 것이다.

교각사의 「여태사 아학」을 비롯한 보현사의 「신우아학」 부산의 「연태아학」 등은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은 81년 겨울 「사원화운동사건」으로 대항 검거되면서 당시까지 이 운동에 참여한 2백여명의 청년불자들이 향후 민중불교운동의 주축세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보수교단의 담담자들이 얼마나 권력과 유착되었으며 불교의 소명보다 자기 보선에 급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공식 확인한 계기가기도 하다. 애초든 사원화운동을 기점으로 탄생된 「민중불교운동가들은 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발족까지 불교내외적으로 부분운동

의 불교운동이 배태되기 시작했다. 소장승려들의 선행회와 교묘회가 조직된것이 그것으로, 이들은 81년 불교개혁을 위한 공개화합하는 등 본격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조계종총무원연구소와 부설 불교사회문화연구소가 생겨 조산연구를 통한 접근이 시도됐다. 본격 불교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83년 7월17일의 범야사 전국청년불교대회(준비위원장 知摩스님)에서였다. 「땅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라」란 주제로 개최된 이 대회는 전국사찰 수와 학인과 청년불자 1천여명이 모였으며 중앙승가대학, 대한불교청년회, 대불련, 동국대석탑회 등이 주축을 이뤘다.

이 대회는 재가와 출가가 분리되어 오던 80년의 불교운동을 불교의 본래승가, 즉 4부대종으로 복귀를 재결속시키려는 의의가 담겨 있었다. 또한 여기서 는 민중 종교의 전통과 불교계 내부의 개혁(불교정제) 및 사회 참여에 의한 정법사회 건설을 직접 밝히고 있었다. 여기서 결성된 전국청년불교대 연합은, 이들이 의지한 「출가·재가의 연계를 넘어선」 뜨거운 단념의 열매, 「불교사회의 합리적인 구조개혁과 주체적 역할확보」 등이 제자리를 잡기전에 신홍사

적되어 불교장래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불어 민중의 생존권과 자유가 가장 극심하게 제약당하던 시기에 불교가 거듭되어나기 위한 자기변신의 몸부림을 시도한 것이 민중불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 민중불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76년 여름 전주 송광사에서 개최된 대불련 2차대회에서였다. 일단 이 대회 명칭이 「민중불교 실천을 위한 대진대회」였음이 시사하듯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민중불교관계 논의가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이 대회에는 각 대학의 불교 학생과 지도교수들까지 참여한 민중불교에 대한 논의가 대량수 수준을 넘어섰음도 시사해준다. 이후 민중불교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별도로 나타난 것은 없으나 그때까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념적 차원 정도에

불교의 침체... 사회적 실천 통해 극복해야 80년 이후 대중포교 위한 사원화운동 활성화

여가 투드러지는 최근에는<하나의 部派>로 평가절하해 버리는경향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일었지만 민중불교운동의 주체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규정하는 정의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민족사와 함께해온 1600년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이나 각고의 노력이라는 불타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을 되새길 때 불교는 당연히 사회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그들의 삶을 향유하고 그들의 해탈에 선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더욱이 오랜 전통의 역사를 단절하고 스스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불교에 대해<아니오>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대의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민중불교의 참다운 중흥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불교운동의 기본취지이다. 그러므로 민중불교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는 불타의 근본정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오늘날의 역사·사회에 대한 상관인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불교의 중흥·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불교대화>라는 두 개의 맥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80년대라는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의 사회운동이 점차 현실화되어가는 가운데 민중불교운동도 그에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불교내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한국불교의 근원적인 병폐가 최고로집



전국승려대회

머물러오던 한계가 일부 벗겨졌다는 측면은 간과할수 없다. 그 영향은 중당과 사찰 그리고 출가승과 포교사라는 기본을 속여 한층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것이 80년 겨울부터 일기 시작한 불교계의 아학운동이며, 이어 전개된 「승려(僧侶)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오르기전에 당국이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음은 사실(사원화운동사건), 오�히려 전문적 불교운동가의 양상을 부재시켰다고 평가할수 있다. 사원화운동은 몇가지 점에서 의의를 담을수 있다. 우선 독자적

이것은 정토구원전국승가회(회장 青和스님)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는 민중불교운동의 최고의 고요기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 격변기라는 성격과 아울러 권력의 폭력적인 보수회귀, 여기에 편승한 중당의 노골적인 관권유착등이 민중불교 운동을 가속화시켰다. 그 박동원사 고문차사사건과 광주원각사회무단사건등은 불교계에 운동의 초석을 던져준 격이었는데 「박원사 천도재」나 「불교단입구법 불교대회」 등이 이의 직접적 반향이다. 이러한 운동에 제동이 걸린 것은 87년 대불련선거를 맞으면서 부터이다. 당시 민중불교운동을 이끌던 민주원합정불교공동위원회(회장 知曉스님)에서 「비판적 지지파」와 「후보단일화파」가 분리됐는데, 이 분리는 그 후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차이로 이어졌다. 9·7 승려대회 이후 부산한 공동대회는 「후보단일화」를 주장한 이후, 대중승가회를 조직했다는 기존의 민중불교연구소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9·7 승려대회이후 민중불교운동을 이끌었던 해인사 소장 승려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삼중불교」와 「민중불교」를 발전적으로 구별, 지향하여 「민중불교정제」를 수립하면서 이를 대중불교운동의 새 지평으로 삼고 있다. 또한 민불련은 중심으로 존속했던 재가의 승가측은 불교위결성으로 주축했던 민중불교운동을 재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비상중단 출범당시, 비상중단 참여를 거부하고 현상태를 주장했던 일단의 승려그룹과 유사성을 두는 측면도 있다.

V 이상 개별적으로 민중불교라는 이름에 전가된 80년대 불교의 혁신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물론 아직도 민중불교운동이 극복해야 할 장애적인 요소나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출가와 재가의 긴밀한 관계설정, 이념의 개발과 정착화, 제 부류간의 운동을 통합·조정할수 있는 지도부의 결성 등.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가지 담판과 제에도 불구하고 민중불교운동은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례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즉 얼마전 전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개최된 불교 2533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세마의 주제가「민중불교 어떻게 될 것인가?」였던 사실이다. 이것은 기존의 불교화자들이 참여하여 민중불교운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평가의 가늠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민중불교운동은 한국불교의 흐름 속에 분명히 하나의 움직임을 인식되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평가의 단안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민중불교운동은 앞으로 한국불교 전체를 책임질 유일한운동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보살의 길을 가고자하는 결의를 지닌 이방의 젊은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김중환 <한국기자협회 편집자장>

I 조선족 5백년간의 정치적 박해와 日南의 식민지배 동조세력과 획책으로 말미암아 오랜동안 짐채와 부진을 면치 못해온 한국불교는 해방이 되고나서도 진정한 자기 위상을 험사리 정립할 수가 없었다. 이승만의 不法論示를 기화로 발생한 숙청<淸化運動>이나 그후 계속된 조계종단 내의 각종 분규에 휩싸여 불교 교단은 혼돈과 후미란을 거듭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독재정권은 불교 독자적인 발전을 일정한 부분 제한하고 분규를 적절히 조장·방조함으로써 교단을 자신들의 지배질서 속에 예속시켜 두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데 이르는 부패·타락한 일부 중당 내 지도층 인사들이 무분별한 매종적 행태와 과욕이 교단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물론 그동안에 한국불교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인식이 기능주의적인 차

부분의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들은 이후 민중불교연구소와 85년 전국청년승가회 그리고 현재의 대중승가회로 그 맥을 잇고 있다.

IV 비상중단이 계기가 돼 불교운동은 출가와 재가로 분리되어 각각 세력권을 형성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두 세력으로 한국청년승가회와 민불련이 공식활동을 재개했지만, 이들이 이런 원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재가와 출가가 혼재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대회후 결성된 불교야합정제공동대책위(공동대표는 당시 재가와 출가의 결속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으며 「5·3인 중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민불련이 활동상에 제약받지 않았던 주중안 출가와 불교개혁에 중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세력이 분리된 것이다. 이중 전자가 해당하는 비탄세력들은 협상포교활동을 더욱 강조하였고 이들 출가승과 재가불교운동가들은 85년 민불련 결

유니언 참여모집장

732-5346 735-3771

군·행정·법·모집·채널·전문·씨·동한

735-9716

주 3일

영·日·獨·中

시사영어학원

734-2442

우리가 기다려온 충격과感動의 바로 그映画!

全世界映画祭賞을 모두 석권하고 드디어 韓國上陸!

MY LIFE AS A DOG 개.같.은.내.인.생

5월 27日 大開封

776-8866-7004

88英國아카데미상 主演男우賞 最佳男우賞!

충격적 現場高발 「손·코넬리」가 또다시 이동한다!!

THE NAME OF THE ROSE 장미의 이름

손·코넬리

6월 3日 大開封

7742-1481-2

◇노래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노동자의 정서담은 노래문화 창작에 눈 돌려야

변혁의식 축적된 음악운동 통해 중간계층에 확산

흔히 노래운동이라고 불리는 음악운동이 시작된 것은 84년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깊은 데에 있다. 연극운동이나 영화운동, 미술운동 등은 연극운동집단·영화운동집단 혹은 진보적 예술을 지향하는 전문미술가들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그 작품적 성과가 생겨나는 것에 비해, 노래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한 음악운동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 나라 현재 음악운동은 변혁운동 속에서 대중들이 스스로 새로운 노래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자체적인 성과축적을 바탕으로 음악운동이 탄생한 것이다.

흔히 노래운동이라고 불리는 음악운동이 시작된 것은 84년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깊은 데에 있다. 연극운동이나 영화운동, 미술운동 등은 연극운동집단·영화운동집단 혹은 진보적 예술을 지향하는 전문미술가들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그 작품적 성과가 생겨나는 것에 비해, 노래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한 음악운동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 나라 현재 음악운동은 변혁운동 속에서 대중들이 스스로 새로운 노래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자체적인 성과축적을 바탕으로 음악운동이 탄생한 것이다.

인간 인식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를 보다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들 미조직 중간계급 대상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대상과 함께 때문에, 건강한 노동자계급의 눈을 갖기 위해 중요하다.

예술운동가는 건강한 노동자계급의 눈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단지 논리적 수순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와

슬로와 발전의 중심이 될 노동자문화를 염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중간계급 대중들에게도 건강한 노동자의 생각과 정서·생활습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간계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와 사상적·정서적 동일성을 확보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는 실상 우리의 음악운동에 있어서 노동자 대상의 활동의 미약함과 무관하지 않다. 87년 이후 노동자 쪽으



최근 들어 우리의 음악운동은 지방의 대중에게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지사의 대학생 노래 운동연합회의 노래공연장면>

근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전문인들의 운동적 자각과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매우 짧아,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음악운동의 존재와 상관없이 대중들은 변혁운동 속에서 스스로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계속해 왔다. 할일무장투쟁의 노래나 독립군가 같은 일제시대 공장노동자운동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그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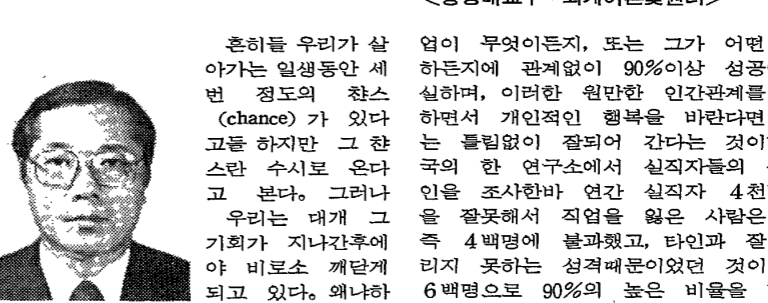
우리 시대의 음악운동의 탄생도 그러했다. 음악인들의 자각으로부터가 아니라 60·70년대 이후 대학 내에서 분리되었던 노래들이 70년대 후반 비조직 독자적 활동층을 가진 노래문화 형성되고 이 것의 발전에 떨어져 노래운동·음악운동이 비로소 84년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음악운동은 다른 장르의 예술운동에 비해 매우 짧은 역사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데 큰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음악운동집단이나 대학 내의 노래씨름의 주류는 새로운 노래 창작자이기보다는 대중 스스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노래문화로 정리·확산(공연, 노래책, 노래테이프 등) 하는 일이었다. 그럼으로써 음악운동집단과 대학 노래씨름이 주 활동대상으로 삼았던 대학생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음악문화·노래문화의 발전은 더욱 확실히 이루어졌다.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성 등을 총체적이고 형상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 둘은 그 활동대상이 중간계급으로만 묶여있어서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우리의 예술로부터 엄청난 문화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민중연 음악분과를 비롯한 서술의 음악운동집단은 중간계

人間關係



崔尙永 <상경대학교 수·회계이론및원리>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동안 세 번 정도의 찬스(chance)가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스란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대가 그 기회가 지나간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있는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찬스는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이든지, 또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90%이상 성공이 확실하며, 이러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 행복을 바라한다면 99%는 틀림없이 접이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실직자들의 실직원인을 조사한바 연간 실직자 4천명중 10%는 잘못된 직업, 나머지 90%는 4백명 정도를 제외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때문이었다는 것이 3천 6백명으로 90%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조직사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서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누려갈 능력이 없는 조화와 완성에 대한 확실한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조직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동시에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 발전을 위해 기본이 되어 인간의 행동은 습관에 의해 형성되고 그것은 가치관에 의한 운명을 낳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을 인정하며 솔직한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등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이해와 서로 사랑과 배려를 다시 만나기도 어떻게 서로를 지고 헤쳐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웃소매만 처드도 인연이 된다고 했다.

좋은 인연으로 맺어졌다가 좋은 인연으로 오래 오래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인간은 자기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또한 학벌이 없어도,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존중을 하라 했다. 그들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이 단남이 중요하며,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길게 연장된다. 때문에 현대 각국에서 종전의 물질적 생활의 질에서 좋은 인연의 가치와 인연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이 곧 사람이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면 그의 의

우선 이들의 노래는 아직도 진보적 대학생의 김수성과 관습사에만 묶여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노래만으로도 대중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렇게 진보적 대학생의 관심사와 김수성에만 묶여 있는 것은 미지 않아 보다 많은 대중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작음하게 될 것이다.

학생운동의 체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대학생들의 노래는, 대학생 특유의 관념성 추상성이 가득하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그것이 노동자의 모습이면 사부직 회사원의 모습이면)이 없다.

일상적 소재나 생활정서까지 포용해내야 한다는 것이 부정적 약화 혹은 이념적 수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과 미래를 모기 생산자인 지식인은 자신의 물질적 토대와 일정한 정도 독자적으로 운동을 해나 가지만, 그외의 중간계급들은 자신의 물질적 토대에서 운동을 시작한다.

그들의 생활의 관심사나 정서를 포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국적 한계로

우선 이들의 노래는 아직도 진보적 대학생의 김수성과 관습사에만 묶여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노래만으로도 대중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렇게 진보적 대학생의 관심사와 김수성에만 묶여 있는 것은 미지 않아 보다 많은 대중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작음하게 될 것이다.

학생운동의 체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대학생들의 노래는, 대학생 특유의 관념성 추상성이 가득하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그것이 노동자의 모습이면 사부직 회사원의 모습이면)이 없다.

일상적 소재나 생활정서까지 포용해내야 한다는 것이 부정적 약화 혹은 이념적 수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과 미래를 모기 생산자인 지식인은 자신의 물질적 토대와 일정한 정도 독자적으로 운동을 해나 가지만, 그외의 중간계급들은 자신의 물질적 토대에서 운동을 시작한다.

그들의 생활의 관심사나 정서를 포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국적 한계로

고단한 네 일상의 눈습위에 우리 땀과 무심한 눈물이 겹쳐져 보물더러 무심한 달은 밝아 번두리 여인숙 창으로 쏟아져 들고 누군가 황급히 골목을 질주하는 소스라쳐 뒤척이는 불면의 시대 우리는 무능력한 아버지를 육하며 어느 상급반 교실에서 발달하게 만났던 이들에 타일라이 지상과 최루탄과 철구가 난무하던 오월 앳웃한 처사들의 파국에 낙담을 하고 광주비디오를 보고 돌아오는 명동성당 그 긴 밤길 내내 분노와 두려움에 떨었지 이제 너와 나의 것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수배를 달고 패배감에 비틀대며 다시 만나 달빛에 항쟁어린 네 머리칼을 서늘하여 북바쳐 쓸어들리면

박태수 <교과서 국문과>

걸단을 요구하던 몸부림이 보이고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가난한 아버지의 세상을 잃고 가두엔 나가고 몇명의 구류와 철야중심 그리고 가슴 뜨겁던 이들의 노래와 구호가 들려온다 이 보수반동의 하늘아래 우린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이발이 새면 후술근한 바지와 잠바를 털고 해맑은 웃음에 담배를 물고 불안전 잠자리를 찾아 떠나겠구나 세상은 배운놈의 순결성을 넘어 속 깊은 사랑과 분노라는 말로 뼈아픈 작성을 남기며 네놈은 도태하는 세상, 예감의 햇살을 받으며 씩씩하게 걸어가겠구나

이영미 <민중극 연구회>

작가의 이야기

「테루테루」공연
극단 「참고」와 「하나」의 합동무대인 「테루테루」가 다음달 5일까지 문예회관소극장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각각 공연된다.

「등신과...」 공연
극단 「신시」는 김상열 연출 「등신과 머저리」를 다음달 5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극장에서 공연한다.

「아가씨...」 공연
극단 「광장」의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양로극공연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각각 공연된다.

초청 강연회
홍산인 아카데미에서는 「도시 시민의 초창강연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김현자 창작무용
문예회관소극장에서 김현자 창작무용은 오는 25·26일 오후 8시에 공연된다.

홍준명 개인전
강남 문화회관에서 오는 29일까지 표트르야양화 홍준명 씨의 85년이후 4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등우대제전
백상문화재단 주최로 제 8회 전국대학 등우대제전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분교 수월점에서 한양대, 국민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해 경연을 벌인다.

세계 문화화보
UNSA에서는 「세계 문화화보 전시회」를 축제기간중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세계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화보 38점을 세계 각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펴놓았다.

홍준명 개인전
강남 문화회관에서 오는 29일까지 표트르야양화 홍준명 씨의 85년이후 4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홍준명 개인전
강남 문화회관에서 오는 29일까지 표트르야양화 홍준명 씨의 85년이후 4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등우대제전
백상문화재단 주최로 제 8회 전국대학 등우대제전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분교 수월점에서 한양대, 국민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해 경연을 벌인다.

세계 문화화보
UNSA에서는 「세계 문화화보 전시회」를 축제기간중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세계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화보 38점을 세계 각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펴놓았다.

「테루테루」 공연

극단 「참고」와 「하나」의 합동무대인 「테루테루」가 다음달 5일까지 문예회관소극장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각각 공연된다.

「등신과...」 공연

극단 「신시」는 김상열 연출 「등신과 머저리」를 다음달 5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극장에서 공연한다.

「아가씨...」 공연

극단 「광장」의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양로극공연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각각 공연된다.

김현자 창작무용

문예회관소극장에서 김현자 창작무용은 오는 25·26일 오후 8시에 공연된다.

홍준명 개인전

강남 문화회관에서 오는 29일까지 표트르야양화 홍준명 씨의 85년이후 4년만에 개인전을 연다.

등우대제전

백상문화재단 주최로 제 8회 전국대학 등우대제전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분교 수월점에서 한양대, 국민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해 경연을 벌인다.

세계 문화화보

UNSA에서는 「세계 문화화보 전시회」를 축제기간중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세계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화보 38점을 세계 각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펴놓았다.

등우대제전

백상문화재단 주최로 제 8회 전국대학 등우대제전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분교 수월점에서 한양대, 국민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해 경연을 벌인다.

세계 문화화보

UNSA에서는 「세계 문화화보 전시회」를 축제기간중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세계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화보 38점을 세계 각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펴놓았다.

동약廣場

창의 736-7676

총학생회 후원으로 제 8회 학술발표회(회장 배용덕)에서는 이달 25일 오후 1시 세물대역 교내 대회의장에서 「중산상사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정주영(대우대) 교수의 중산의 해외사업개발로 본 남북화해대상의 주제발표가 있다.

박시 전시기회
경주캠퍼스 「시선」문화동인회에서는 여덟번째 박시 전 시회를 지난 22일밤 7시부터 27일까지 녹아역 교내 사리에서 갖는다.

불교 교리강좌
중산인사회의(회장 김재현)에서는 다음달 4일부터 불교 기초교리강좌를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조계사내 불교회관에서 연다.

등문선악

실문 조사
민주문화회(회장 신영리)에서는 오는 6월초부터 열흘간 분교 4호선을 대상으로 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자단
동약사수설 개소
통계학과 동약회(회장 조광호)는 지난 19일에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약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위촉사는 조광호를 가졌다. 위촉사는 조광호를 가졌다. 위촉사는 조광호를 가졌다.

영수필 경시대회
동약포스트 주최 삼영인회(주) 후원으로 재학생의 영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제 4회 영수필 경시대회를 다음달 2일 오후 5시 50분부터 별관 A103에서 개최한다.

최우주작 1편 상금 10만원 및 상장, 가작 2편에는 상금 5만원 및 상장이 수여되며 참가자는 대회위원 영자신문사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8131 (교한)

학술답사 사진전
서울캠퍼스 지리교육과 주

박태수 <교과서 국문과>

고단한 네 일상의 눈습위에 우리 땀과 무심한 눈물이 겹쳐져 보물더러 무심한 달은 밝아 번두리 여인숙 창으로 쏟아져 들고 누군가 황급히 골목을 질주하는 소스라쳐 뒤척이는 불면의 시대 우리는 무능력한 아버지를 육하며 어느 상급반 교실에서 발달하게 만났던 이들에 타일라이 지상과 최루탄과 철구가 난무하던 오월 앳웃한 처사들의 파국에 낙담을 하고 광주비디오를 보고 돌아오는 명동성당 그 긴 밤길 내내 분노와 두려움에 떨었지 이제 너와 나의 것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수배를 달고 패배감에 비틀대며 다시 만나 달빛에 항쟁어린 네 머리칼을 서늘하여 북바쳐 쓸어들리면

이영미 <민중극 연구회>

초청 강연회
홍산인 아카데미에서는 「도시 시민의 초창강연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연두시범
선우부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만해광장에서 태극 4장, 불무도, 호신술, 종합격파 등의 순으로 25명의 회원이 1시간여에 걸쳐 시범을 보인다.

새 노래 한마당
경주캠퍼스 앞생에서는 여덟번째 새 노래 한마당을 내일(25일) 오후 1시와 5시 두차례에 걸쳐 원효동 소극장 II에서 공연을 갖는다.

세계 문화화보
UNSA에서는 「세계 문화화보 전시회」를 축제기간중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세계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화보 38점을 세계 각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펴놓았다.

등그라미 사진전
등그라미주최회 「제 20회 등그라미 축제사진전」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별관 1층에서 35점의 사진(11×14인치)을 전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평화운동 심포지엄」
평화선연에서는 「반전반핵 평화운동론(주제: 핵과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을 오는 29일 오후 4시

등우대제전
백상문화재단 주최로 제 8회 전국대학 등우대제전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분교 수월점에서 한양대, 국민대 등 9개 대학이 참가해 경연을 벌인다.

세계 문화화보
UNSA에서는 「세계 문화화보 전시회」를 축제기간중에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에서 세계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화보 38점을 세계 각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펴놓았다.

「민주적총장선거」가 학자투 최대관건

총학, 지도력 회복으로 대중성 확보해야 학교, 수동자세 탈피 등 과감한 혁신 필요

지난 23일로 학원자주화추진(이하 학자투)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이론적·실천적으로 전통국인의 자주적 의식을 고양, 명실상부한 「학자투의도법」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3자언석회의, 교과과정 재편위원 8개팀에 합의, 학자투의 구조적 틀을 마련한 성

과를 토대로 11월로 예상되는 총장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학기 최대의 과제인 총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나는 올해상반기 학자투의 함의를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88년 5월부터 본격적인 학원자주화추진(이하 학자투)이 전개돼 소중찬 성과를 거둬왔고, 타대학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89년에는 오히려 총학생회장선거의 유류종과 4·5월 계속되는 「난비국구추진」 관련집회를 잇달아 개최, 학자투진척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의아심을 표하고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장선거」에 최대의 촉진을맞은 학자투는 성공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난해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할것이다. 아울러 가장큰 과제로 꼽히는 독립운동가 추모사업(이하 독립추진)은 재단의 물적구조혁신추진의 기초가 마련됨에 대해 의의를 본다. 등동부는 학생대중들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에

서 시작된 교육환경개선과 내용의 개선조치도 담보하지 못한 등동부인상을 재단전입금확보와 물적구조의 근본적혁신으로 결합시켰다. 또한 등동부의 여파는 학생들이 학사운영(특히 재정면)에 심취를 행사할수 있었으며, 재단의 법정정입금을 연 5억원이상으로 확보하고 학생대중의 공감대형성에 큰 기여를 한것으로 의의로들수있다.

행사나 열속 주체의식 "실종"

만의 참여로 전야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행사를 위한 행사 차원에 머물렀다는데 의견. 17일 연우회와 결연이 가교내일에서 흥겨운 농악 소리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

「통영오광대」등 현실비판 공연 호응 높아 홍보·참여부족으로 대동제 참의미 "탈색"

경주캠퍼스 설립 11주년 기념축제의 「조각 한마당」이 「살아있는 조각, 5월의 합성으로, 민중해방의 불꽃로!」라는 기치아래 지난 16일 전야제를 필두로 막을 열어 20일의 백사연을 끝으로 2사연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올해 「조각한마당」에서는 홍보부족, 무허가 주제의 난립, 각종 행사취소, 참여의식의 부족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대동제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끌어 내는데 아쉬움을 남겼다.

등과 아울러 고질적인 학생들의 참여부족을 타파하지 못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실현과 정확의 장으로서 「한마당 축제」가 되기에는 미흡함과 아쉬움을

남기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각 단대 및 학과별로 계통과 내용성있는 행사가 부재한 점, 대부분 동아리의 자족적 행사로만 치중된 점, 총학생회와 일정이 겹쳐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등 대동제 본연의 의미가 빛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첫행사로 오후 5시 전야제, 17일 조각한마당, 18일 조각한마당, 19일 조각한마당, 20일 조각한마당 등 4일간 진행되는 「조각한마당」은 18일 18시 30분부터 5월 20일 18시 30분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영오광대」 공연은 고전극을 통한 현실비판으로 많은 호응과 성원을 받은것은 주목할 만한 것. 오후 6시 「연출제」는 3학년들의 놀이마당으로 3부로 나뉘어 문무관에서 열렸으나 예년의 문제점을 타파하지 못하고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못한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5월 19일 오후 7시 30분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각한마당」은 18일 18시 30분부터 5월 20일 18시 30분까지 3일간 진행된다.

표 각 2인, 불교계인사 1인 등 총10인으로 구성되며, 학생 2명은 회의에 참석, 발언권만을 갖는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李智冠총장에 제향군인회관(동국별관) 신축공사추진도 약속받았다. 또한 교과위는 교과과정개정, 신규교수초빙, 특강실시, 조직개편등으로 구성·활동되었으나 교과위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리한 교과위조직여담비비, 연구내용부실, 실제활동부재, 방학으로인한 고립등으로 실천이 미비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학생대표자문 상충교섭으로 결정된 사항은 교수와 학생의 합의로 교과위의 전환적 사업을 결정짓게 돼 지난해 학자투의 소중한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실감할수있다. 89년상반기의 학자투는 시기적으로 총학생회장 선거로 인한 문제발생, 국제노동절과 5.18투쟁등 대외정치사건등에

역점을 돌며 따라 작년과 달리 총학자체내에서도 활발한 사업전개에 난항을 겪고있으며 더불어 학생들 역시 대중적외면과 필요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이후 과제는 학자투와 정치투쟁을 함께 공론시키는것이 다. 학자투의 위상정립에서부터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총학생회의 지도력 회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측도 그



독특히 보란 말이야

「이게 바로 하이철규등이 현정권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뭘냐.」 지난 19일 「하이철규등 지고문살인음모죄자판결」에 참가하려면 본교학생들이 후문 입구 퇴계로앞에서 전후경찰

복싱2명 국가대표로 김철규 「세계아마레슬링」출전

본교 레슬링부 김철(경원 2)군이 지난16일부터 18일까지 88체육관에서 열린 「89 세계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이번 선발전에서 김철군은 함평원(전주제지) 박상하(부산시청) 육백호(조광회학)를 차례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74kg급 자유형의 박영진(체교 2)군은 김광수(본교교수)에게 1대 0으로 판정패, 2위를 차지 대회규정에 의해 오는 6월경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캐나다 아마레슬링대회」에 출전한다.

한편 복싱부 이훈(체교 3)유창현(경원 4)군은 지난 15, 16일 양일간 열린 「제1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 국가대표로 선발전 「제1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이날 대회에서 이훈군은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김철수(동아대)·남성희(상무)를 각각 실란전원일전판승을 거두고 1위에 올랐다. 한편 「제1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일본·태국·필리핀등 아시아 30여개국에 참가하는 가운데 북경에서 개최된다. 경주 시적부는 지난15일부터 20일까지 태백산악사격장에서 열린 「제5회 최장기전 국가사격대회」에서 2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본교사적부는 첫번째날인 15일의 공기소총단체전에서 1천 7백32점을 획득 우승을 차지했고,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캐나다 아마레슬링대회」에 출전한다.

한편 복싱부 이훈(체교 3)유창현(경원 4)군은 지난 15, 16일 양일간 열린 「제1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 국가대표로 선발전 「제14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해태 에이스크래커가 청소년가장을 돕습니다



에이스크래커 수익금의 일부로 청소년가장 100명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합니다.

꿈은 저들의 맥박입니다. 희망은 저들의 힘입니다. 사랑은 저들의 체온입니다. 해태가 역경속에서도 꽃피게 살아가는 청소년가장을 위해 사랑의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10년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에이스크래커의 수익금일부를 사랑의 성금을 마련, 청소년가장 100명에게 전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가장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에이스크래커 사랑의 캠페인

- 에이스크래커 판매액의 수익금 일부로 기금 조성 청소년가장 100명을 선발, 월 100,000원씩 1년간 지급합니다.
-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 : 부모님이 양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남·여) 가정
 - 신청방법 : 대상자의 호적등본, 환경개선서 11를 우송해 주십시오.
- 신청기간 : 1989년 4월 1일 ~ 1989년 6월 30일
- 모집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6 해태제과 소비서비스팀 [50] - [10] 5
- 문의전화 : 633-1112(소비보호실)
- 선정방법 : 해태제과 임원 및 사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선정. * 해당시에는 개별방문 및 '89년 7월 중 신문지상 발표예정

■ 보낼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6 해태제과 소비서비스팀 [50] - [10] 5

■ 문의전화 : 633-1112(소비보호실)

■ 선정방법 : 해태제과 임원 및 사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선정. * 해당시에는 개별방문 및 '89년 7월 중 신문지상 발표예정

■ 신청기간 : 1989년 4월 1일 ~ 1989년 6월 30일

문화대동맹

노래하자! 해방조국의 새 날을

속에서 공동적인 감수성과 의식을 추렴... 25일 10시30분 운동장에서 있을 전경·학생체육대회...

행사담당 이근호

45년을 넘기는 분단의 아픔을 추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조국의 새 날을 이룩할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의 참가...

각 행사 내용

전시행사

- 미술계 해외로보비 - 미술학과 학생회
전경대학 전시회 불사일 - 독성
전경대학 미술관 2층 전시관 - 전경공학과

상설행사

- 피소 피켓전 A 105
평양축전 참가 및 통일을 위한 마당
세계 청년학생축전 비디오 상영

기층민중입장 배제... 반대파논리 일축

TV 시사토론 프로의 문제점

KBS-TV의 「시사토론」전화를 받습니다. M-TV의 「박경재의 시사토론」 등이 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서의 유례없는 관심을...

해관계가 걸린 주제에 대해 민주적 토론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적인 균형에 있어서는 대안적 편파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인사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진행방식에서 두드러진 것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시사토론 프로의 비공정성은 출연진의 양적균형의 편파성과 사회자의 비민주적 진행에서 그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색은 출연진의 선정과 생방송이라는 진행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중적 인사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진행방식에서 두드러진 것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알아답시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23항)

중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카이슈는 그런 본연의 자세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아인슈타인의 구도자의 결함한 정신세계는 당시 상황엔 맞지 않는 자로...

진실의 증명
이러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관심」의 넘쳐나는 질적 풍기는 허니니즘과 리얼리즘의 묘사이다. 로니의 대표작 중 철도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예외시키고 비통해하는 가족을 묘사한 '철도의 비극'이 있는데 여기에는 뜻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휴머니스틱한 정경이 넘치고 있다.

후 사진은 「역사의 오늘」을 글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실체는 당시 상황에 대한 꾸밈없는 자료...

함께 죄고픈 화롯불 같은 이야기들... 두산그룹과 함께 나누시다...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인정.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모습. 따뜻한 인자미가 담긴 호젓한 이야기들... 생활의 풍요만큼 마음의 풍요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획했습니다. 화롯불 같은 이야기들을 두산그룹과 함께 나누시다.